

“세계가 깜짝 놀랄 성공 박람회 만들자”

李대통령 여수 박람회장 현장 ‘성공개최 다짐대회’ 참석



이명박 대통령이 개막 100일 앞으로 다가온 여수세계박람회 현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행사의 성공개최를 다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1일 확장 개통된 KTX 편으로 여수를 방문, 덕진동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박준영 전 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 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 고 엑스포 성공 개최와 지역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맹형규 행정안전·권도연 국토해양부 장관과 하금열 대통령실장, 최금락 홍보수석 등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수 세계박람회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행사로 자리잡았다”면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가 미래·환경·연안 등 특별한 주제들로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세계가 깜짝 놀랄 성공적인 박람회로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제관을 비롯해 한국관·아쿠아리움·국제관·스카이

타워 등이 들어서는 박람회장 현장을

둘러본 뒤 행사 관계자·지역 유력 인사·지역 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현대차그룹 회장, 작고한 장승우 전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 허동수 GS칼

텍스 회장에게 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들어 훈장을 수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수로 황하는 KTX 열차 안에서 동승한 여수 시민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어린이 기자단 등 과 여수 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는 이벤

트를 했다. 이 대통령의 여수 방문은 지난해 10월 전라선 복선 개통식 참석 이후 4개월 만으로, 박람회 준비에 대한 이 대통령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한국관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과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를 다짐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여수=최현기자 choi@kwangju.co.kr

“동북아 상품거래소 광주에” “호남고속철 신선 건설해 달라”

<新線>

李대통령-16개 시도지사 간담회…복지 지원·규제 완화 건의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다짐 대회 참석을 계기로 여수에서 전국 시도지사회 의를 열고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010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로는 첫 전체 회의다.

이날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시·도지사들은 복지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분야에서 중앙정부

의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주로 건의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광주에서 열린 ‘지구환경전망 세계정부간 회의’의 특별세션으로 논의된 도시 정경개발체제(CDM)를 자세히 설명하고, 도시(CDM)를 주도하는 광주에 ‘동북아 상품거래소’를 설립해 주도록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대전·대구 과학비즈니스 3각벨트가 균형있게 육성될 수 있도록 ‘광주 차세대 다목적가속기’ 조기 건설과 함께 한국전기연구원 및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광주분원 조기설립도 건의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목포 구간 건설과 관련,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고속 신선으로 건설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사업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의 조건 착공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개발계획이 반려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부동자구’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승인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관련, “각료들과 얘기를 하겠지만 나와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는 게 좋은 것”이라면서 “나는 서울시장 4년 동안 이런 기회가 없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나온 얘기는 이후에도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율기자 dok2000@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조합원 소득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는

대촌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남구 지석동 409-12 TEL.062-374-6021

깨끗하고 깔끔한 자연의 맛 즐기세요.

“대촌 사람들”

빛고을 광주+ 우수농특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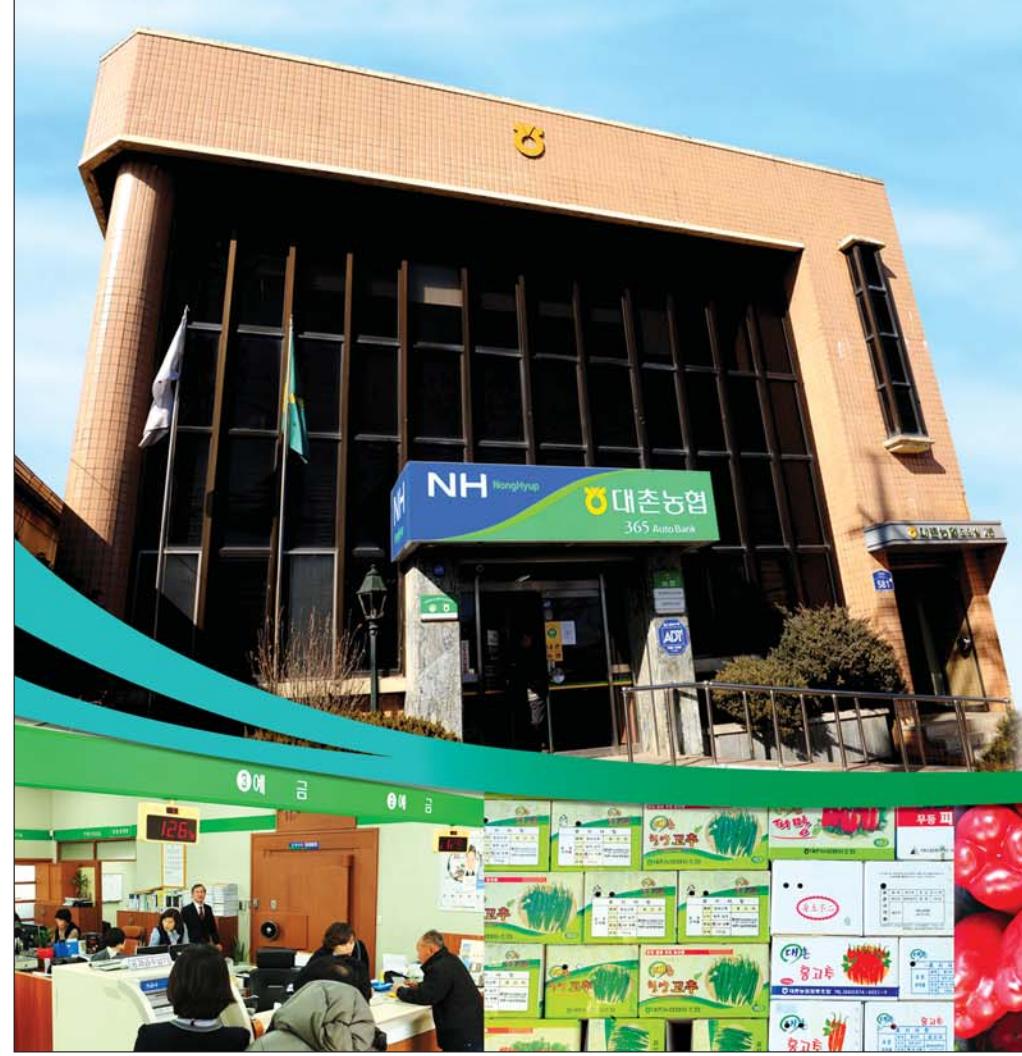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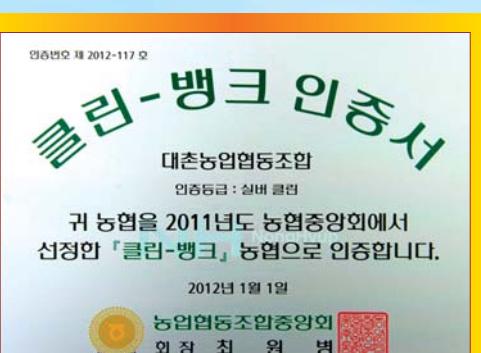
대촌 농협

조합원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장 전봉식

이 사	박 종 윤	이 사	김 선 정	김 사	김 한 동	지점장	곽 정 동
이 사	최 석 두	이 사	서 상 협	감 사	운 형 신	지점장	김 미 경
이 사	정 경 속	이 사	최 수 섭	상 무	홍 성 윤		
이 사	서 용 열	이 사	최 종 규				

‘클린-뱅크’ 농협으로 인증



샀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다양하고 충분한 행정 경험과 학자로서의 소신, 경실련 등 시

민사회 활동 등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는 공익적 삶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혁명을 이끌 공심위원장으로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강총장은 대전과 서울 상대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내면서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부페방지 위원장을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첫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이종혁기자 golee@kwangju.co.kr